

테마칼럼

이성제

정치프리즘

왕태의 눈

윤와영기

김홍업과 김현철, DJ와 YS



김현철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현(주)넥스투 투자고문>

DJ의 노욕으로 이젠 YS-JP-이회창은 물론... DJ의 노욕으로 이젠 YS-JP-이회창은 물론

김대중가는 진기록을 갖고 있다. 아들 셋이 모두 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장남 홍일씨는 국회의원 재임 중, 그것도 아버지의 대통령 재임 중 부정한 돈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초유의 '3부자 국회의원' 탄생?

여기에 또 다른 초유의 진기록이 더해질 것 같다. 김대중가에 '3부자 국회의원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DJ의 장남 홍일은 아버지로부터

부자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김홍업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그 역시 2002년 8·8 재보선에 출마키 위해 마산으로 주소를 옮겼다.

DJ와 YS의 차이도 극명하다. DJ는 홍업씨의 출마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여권의 대통합'을 강조하며 그 적격자로 차남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노갑-한화갑-설촌 등 동고동락 및 열린우리당의 전폭적 지원사격과 민주당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다. 게다가 범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동영전직, 김근태전직, 전정배의원도

DJ의 '상왕정치'와 호남 유권자

홍업씨는 현철씨에게, DJ는 YS에게,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김정 DJ와 홍업씨는 '범여권의 통합'을 원하는가? DJ의 노욕으로 이젠 YS-JP-이회창은 물론 전두환까지 나서지 말란 법이 없게 됐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J프로젝트 시설중복 개발방식 안 된다

해남·영암 일대에 조성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방식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J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골프장과 카지노 등 주요 레저·위락시설이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리적으로

전남도의 'J프로젝트 중간용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암호 인근과 금호호 1방조제 주변에 카지노 시설이, 영암호 인근의 골프커뮤니티와 금호호 수변 골프장 단지가 각각 들어서게 된다.

단지별로 특정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개발방식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특히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 관광객 집중효과가 높은 시설은 한 단지에 집중 배치해야 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단지별로 특정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개발방식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특히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 관광객 집중효과가 높은 시설은 한 단

지역대학도 '교수 철밥통개기' 나서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대학에서도 '철밥통 개기' 움직임이 한창이다. 전국적 규모로 대학들이 연구 및 강의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 승진·정년 심사에 반영하고, 여러 등급으로 나눠 연봉·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지역대학의 경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광주·전남지역 대학도 교수사회의 문화를 쇠퇴해 경쟁을 유발해 야 한다. 그레아 대학도 살고 지역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 교수사회의 '철밥통 개기'가 지역 대학가에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無等鼓

지난 2005년 7월7일 오전 9시, 영국 런던 킹스 크로스 등 지하철역 세 곳과 버스에서 동시다발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사망 56명 부상 650여 명, 사상 유례없는 테러에 영국은 경악했다.

CCTV는 89곳 169대, CCTV가 있는 목포·장흥 등 9개 지역 범죄 발생률은 16% 줄었다고 한다. 경찰은 CCTV를 확대 설치하면 강력사건이 격감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노래방·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후 대학회의를 갖고, 폐쇄회로

영국은 런던 테러 후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CCTV의 20%가 런던에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하루에 쏟아지는 필름만 1천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자국 출신 공상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예견했던 '1984년'(Nineteen Eighty Four)이 도래한 것이다.

경찰의 착각



위크 자원을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첨단장비가 배태된 형사의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것은 경찰의 착각이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제자리에 앉혀야 한다. 그게 적체적소(適材適所) 원칙이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

의로 칼럼

신삼식



따사로운 햇빛이 아이 볼나들이를 유혹한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얼굴에 기미, 잡티가 생길까하는 두려움이다. 겨우내 자외선 노출이 적었던 피부가 무뎠기때문에

이다. 또 피부가 전체적으로 맑아지면서 모공, 잔주름이 개선되고, 진피에 기미(ABNOM)도 치료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심부 피부 재생술의 경우

기미 예방과 최신 치료법

리는 흑자, 주근깨, 검버섯 등은 하나씩 구분이 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후천성 양측성 오타모반양 반점(AB-NOM)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청회색을 띠고 있어 기미와 유사하다.

깊어 자외선 B보다 10배나 많은 양이 지표면에 도달하며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95% 정도를 차지한다. 또 날씨, 계절, 태양의 높이에 따라 영향을 덜 받으며 구름도 상대적으로 잘 통과해 흐린 날에도 문제가 되고, 창문이나 얇은 커튼도 통과 가능하다.

관용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해 연료 절감해야

기름값이 오르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공공 기관에서 차량 5부제나 10부제를 하는데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이렇게 5부제나, 10부제나 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게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 공무원 고위층들의

제에 걸리게 되면 개인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차량 5부제, 10부제로 인해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모를 것이다. LPG 차량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30~40%까지 절감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고

한희원



지난해 이맘때 히말라야를 오른 적이 있었다. 신이 만든 자연의 모습에 숨이 막힘을 느꼈는데, 밤늦게 도착한 뉴욕의 야경은 또 다른 숨막힘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자연이었다.

뉴욕 아트 엑스포는 세계 50여개국 1천여개 화랑이 참가, 뉴욕 자비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 시장 중 하나다. 이번 출품작들은 영상, 설치보다는 회화 중심이었고 아트페어답게 색채가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다.

광주 미술, 이젠 세계로 눈 돌리자

제작을 해야 하니, 작가들의 고단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세계적 수준이라 함은 작가의 창조성과 첨단 과학과의 접목, 완벽한 작품과 제반사항을 위한 자부력, 그리고 그것을 세계로 연결해주는 화상, 큐레이터의 역할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일이다.

품이 가득했다. 전시장 곳곳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대단했고 작품소양에도 관심이 많아 열어나 문화적 삶이 뿌리내려 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문화는 짧은 시간에 역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관심과 수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고 또한 예술가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가방과 구두등 명품 두른 중학생 위화감 조성

중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풀이 잔뜩 죽어 돌아와 "우리집은 가난해서 싫어"라고 했다. 이유를 물어보니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중에도 명품족이 있어 '가짜족'을 구별해 편을 가르고 빈부차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에서 벗어나 좀더 튀어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한다. 옷만 교복일 뿐 가방과 구두는 명품인 여학생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아이 말로는 보통 한바탕 5~6명은 진짜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고 다니며 은근히 과시한다고 한다.